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定價 一個月八拾錢 三個月貳圓四拾錢 六個月四圓八拾錢 一個年九圓六拾錢 地方必先金
廣告料 五號活字 每行 金壹圓 …
發行所 朝鮮日報社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

社說

勞資爭議와 直接行動의 價値와 意義(上)

一

勞資爭議는 近代資本主義文明이 産出한바 社會問題의 中心事實이니 勞働者가 잇고 資本家가 잇는 社會에서는 어느 社會를 勿論하고 頻頻히 反復되는 現象이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勞働者側에서 勞働條件의 改善을 資本家에게 要求하는 것으로부터 惹起되는 現象이다

元來 資本家와 勞働者사이에는 利害가 相反하야 一便이 利하면 一便은 害하게 되는 것이다 假令 勞働者가 勞働條件의 改善을 資本家의게 要求하야 그 目的을 貫徹한다는 것은 곳 資本家의 損害를 意味하게 되는 까닭에 勞働者의 要求가 잇슬 때에 資本家가 그것을 容認치 아니하야 所謂 勞資爭議라는 現象이 惹起되고 만다

二

그런데 勞資爭議를 이르키는 直接動機는 두가지가 잇스니 첫재는 資本家가 社會的으로 優越한 地位와 權力을 가지고 잇슴으로 勞働者의 모든 勞働條件을 自身의 利潤慾을 充分하기에 가장 有利하도록 任意로 制定하야 勞働者의게 이것을 强要하게 된다 그러면 勞働者는 여기에 無條件屈從이 아니면 反抗밧게 道理가 업다

그 다음은 勞働階級이 階級的 利益이란 것을 意識하게 되는 것이 動機가 되나니 다시 말하면 모든 社會的 生産이 直接 自階級의 手中에서 生産됨에도 不拘하고 自階級은 一生涯동안 窮乏 悲慘한 生活을 하게 되는 反面에 資本家는 資本이란 特殊物을 利用하야 莫大한 利潤을 搾取하여 가지고 浪費享樂生活을 하게 되는 것을 理解하게 되는 때에 經濟組織 그것에 根本的 不滿을 품고 이것의 變革을 目的으로 하고 이러나는 것이다

三

이와 가튼 動機아래에서 이러나는 勞資爭議에 잇서서 資本家는 모든 社會的 權力을 掌握하고 잇슴으로 壓迫 蹴踏을 行하기를 躊躇치 아니한다 그리고 勞働市場에는 多數한 所謂 産業豫備軍(失業者)이 잇고 勞働力을 賣하야 最低의 生活을 維持하고 잇는 勞働者는 資本家의 脅威에 屈從을 當하는 그날부터 生活의 脅威에 戰慄하는 弱點이 잇슴을 看破한 資本家는 徹頭徹尾 無慈悲한 手段으로 臨하게 된다 그러나 勞働者는 權力의 後援은 姑舍하고 自階級內에 何等의 産業豫備軍의 競爭이 잇슴은 아니라 直接으로 失業이라는 死活問題의 威脅을 맛는 까닭에 資本家의 强壓的 條件에 屈從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處地에 잇게 된 것이니 果實이 엇더 그러면 勞働者는 宿命的으로 永遠히 資本家의 暴力下에서 呻吟하게 될 것인가 이에 勞働階級은 資本家의게 對抗할 鬪爭的 武器로서 「團結」이 唯一의 武器임을 發見하는 同時에 一步를 進하야 資本主義的 經濟組織의 指導原理가 온녀 包藏되야 잇는 非理와 缺陷을 指摘하면서 獨特한 自階級의 新文化를 創造하야 遠大한 階級의 目標를 確立하고 一面으로는 當面問題의 解決策으로 經濟的 直接行動을 取하기까지 到達한 것이다

四

以上에 말한바와 가티 勞働階級은 資本家의 橫暴를 擊肘하기 爲한 武器와 標語를 定하게 되엿스니 이에 勞資爭議는 深刻化 具體化하게 되엿다 이럭드시 具體化 深刻化하여 가는 勞資關係에 잇서 經濟的 直接行動이 當面의 鬪爭的 武器로서 相當한 價値와 意義를 가지게 될 것은 必然의 要求이다. 그런데 이러한 過渡期에 잇서 資本家 및 爲政者가 이 事態를 非常視하지 아니하는 同時에 또한 相應의 對抗策을 講究하게 되는 것도 勿論이다 그러면 勞資爭議에 잇서 勞働階級의 鬪爭的 武器로서 經濟的 直接行動은 果然 如何한 價値가 잇는 것인가 또한 資本家 및 爲政者는 여기에 엇더한 手段과 方策으로서 臨하게 될가 問題를 거듭하야 論及하여 보자

保障條約과 英國態度 獨逸支持? 佛國支持?

(쎌도無電六日發) 英國下院에서 「휘잇사」氏는 病中에 잇는 「로이드·쪼지」氏에 代하야 自由黨은 佛國의 保障條約에 關한 獨逸의 提議를 支持한다 宣言하얏고 次에 外相 「첸바렌」氏는 「자루」駐箚 佛國政府委員으로 하야금 佛大統領을 支持한다 主張하야 獨逸의 「케른」撤退要求는 獨逸의 條約上 義務不履行에 基하야 正當치 아니하다 陳述하얏다더라

新航空路創設次 英國兩大臣의 實地踏査

(倫敦七日發) 英國航空大臣 「호아」氏及植民大臣 「아멜리」氏 其他一行은 今月末出發하야 特히 英帝國新航空路創設에 關한 目的으로서 「이라쿠」 「메소포타미아」 「파레스타인」等 各地를 公式으로 視察할 터이라더라

獨逸議會休會 大統領選擧까지

(쎌도無電六日發) 獨逸議會는 來週終末까지 卽 大統領選擧의 終了까지 休會할 터이라더라

土國의 公安維持 刊行物發行停止

(콘스탄치노풀七日發) 土耳其官憲은 公安維持의 名下에 六種의 刊行物發行을 停止하엿더라

兩氏말세유發

(쎌도無電六日發) 佛領東京의 首府 河內 「모고」氏와 「제네바」阿片會議에 殖民地代表인 印度支那關稅局長 「킬시에」氏는 五日 「말세유」를 出發하엿더라

治安法案과 本黨態度 二三修正後承認

(東京電) 政友本黨은 七日正午부터 代議士會를 開하고 治安維持法에 關하야는 二、三修正한 後 原案에 贊成하기로 決定하얏고 尙且 板倉子爵에 對한 與黨側의 決議案에 對하야는 絶對反對하기로 決定하고 零時半 散會하얏더라

貴族院의 普選特別委員

(東京電) 貴族院의 普選案特別委員은 七日에 左와 如히 決定하얏더라

花井卓藏、林博太郞、松平賴壽、大河內正敏、野村益三、渡邊千冬、武富時敏、福原鐐二郞、富谷鉎太郞、水野鍊太郞、內田嘉吉、斯波忠三郞、勝田主計、矢吹省三、澤柳政太郞、高田早苗、樺山資英、外十名

板倉子 失言問題와 四派決議

(東京電) 板倉子爵의 失言問題에 關한 四派委員會는 七日午前十時半 院內에 開會、衆議院에 提出할 決議案에 就하야 協議한 結果 左와 如히 決定하야 此를 七日午前十一時半부터 開會할 三派交涉會에

四日貴族院議員板倉子爵이 試한 演說은 本院을 無視하며 議員을 侮辱한 것이라 認함

問責은 絶對不可 ‖

(東京電) 革新俱樂部代議士會는 七日零時半부터 控室에 開會 尾崎行雄氏 過般貴族院에서 演한 板倉勝憲子의 言辭에 對하야 三派有志로부터 七日의 本會議에 問責한 動議를 提出할 터이엿스나 如斯한 일은 衆議院에서도 貴族院에 對하야 屢屢히 云謂하얏고 猪野毛、森田事件 結末을 짓지 못한 今日에 其罪를 責할은 噴飯한 바이며 且 其結果 貴族院의 反感을 買하야 普選의 審議를 遲延케 하야서는 反히 惡化를 釀하는 것임으로 幹部에서는 三派交涉會에 對하야 此를 中止하도록 努力하기를 希望한다 陳述하고 其外 二三의 質問이 잇고 散會하엿더라

貴院豫算審査 期限延長

(東京電) 貴族院豫算委員會의 報告는 來十二日本會議에 上程할 터이엿스나 審議가 意外로 手續이 걸리여 第三、第五分科의 決定이 遲延될 것이 明白함으로 林委員長은 石渡委員長과 協議한 後 三日間 審査期限을 延長하기로 內定하야 此를 十日本會議에서 承認을 求할 터이더라

朝鮮關係質答 決算第五分科會

(東京電) 衆議院決算第五分科會는 七日午前十一時四十分開會 朝鮮總督府의 租稅勸業及官有財産收入其他에 關한 淵田議次에 對하야 草間財務局長 朝鮮의 租稅制度는 아즉 完全하다고는 할수 업스나 如何한 點을 改廢할는지는 具體的으로 決치 못하엿고 朝鮮鐵道는 此를 總督府에 移管하는 것이 一切의 點에 便宜라 思한다고 答하고 更히 二三의 質問이 잇고 正午에 散會하얏더라

咸鏡鐵道問題로 三派幹部懇談會

(東京電) 例의 運動論外지 惹起한 朝鮮咸鏡鐵道問題에 關하야 三派幹部는 憲政會의 戶澤民十郞氏主催下에 七日午後七時 帝國호텔에서 懇談會를 開催하엿더라

大阪無電放送 四月一日開始

(大阪電) 大阪無電放送局은 三越支店八階樓上에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設備設定에 着手하얏고 放送은 四月一日부터 開始할 터이더라

小運送機關의 改善必要

小運送機關의 改善이라는 것은 從來 深切히 注意하는 中인바 小運送機關의 充實은 國民生活과 가장 密接한 關係가 잇는 것으로 所히 國家的 重大問題임에 不拘하고 僅히 此問題를 硏究하게 되기는 關東震災後이니 卽 彼震災에 依하야 世人이 直接으로 小運送의 關聯이 意外로 尙不備한 事實과 其料金이 意外로 高額인 事實을 體驗한 結果 改善充實의 緊要함을 認하게 되엿다 元來 物價라는 것은 生産費運賃及商人의 手數料로 標準을 삼는 것이라 如言하면 貨物에 더지 運賃을 負擔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는 바 特히 遠距離로부터 輸入되는 重量又大量의 貨物은 其大部分을 運賃으로 消費됨으로 만일 運賃을 低廉하게 만하면 物價는 그만치 低廉하게 되는 것이다 鐵道와 船舶에 依하는 것은 이 大運送에 依하야 其規定料金은 其制度를 改善하면 某程度까지 低廉을 期할수가 잇는 바 小運送料金의 低廉은 物價의 低廉을 期하게 하는 것이며 物價의 低廉은 國民生活을 安定케 하는 것인즉 이 小運送의 制度를 改善하야 料金을 低廉케 하야 써 物價를 下落케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라 某運送重役은 말하더라

臨淮小作人의 굳은 誓約 九個條項을 새로 決議

珍島郡臨淮面小作人會에서 第二回定期總會를 開催코자 準備中이라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同會에서는 去三月二日에 同會事務所에서 第二回定期總會를 開하고 會長 曹秉祚氏의 開會辭가 잇슨 後 臨時議長을 李喆鎬氏로 選定하고 朴智俊氏의 經過報告及決算報告가 잇슨 後 左記事項의 決議와 任員을 改選하고 來賓 趙丙康、朴興坤 兩氏의 熱烈한 講演으로 同午後五時에 閉會하얏다는데 決議事項과 改選된 委員은 아래와 갓다더라

◇決議事項

一、從來에 會長制이든 會則은 廢止하고 委員制로 改正할 것
二、從來 會長制當時의 任員은 全部 辭職하고 委員制로 하야 總會에서 選擧할 것
三、小作人同盟을 部落單位인 細胞團體로 組織하야 本會에 加盟케 하고 本會는 中央集權制로서 各里細胞團體를 統率하야 指導監督할 것
四、會員이 同會員의 小作權을 侵害할 時는 本會則施行細則第二十三條의 規定에 依하야 違約金을 徵收하며 小作權은 舊小作人에게 回復케 할 것
五、非會員으로서 會員의 小作權을 侵害하는 時는 積極的으로 會員을 後援하야 耕作케 할 것
六、會員의 小作權을 保障하기 爲하야 隣援隊를 組織할 것
七、從來 小作料 四割制의 規定은 廢止하고 該收穫에 準하야 一坪五合以內는 二割、一坪一升以內는 三割、一坪一升以上一升五合以內는 四割、一坪一升五合以上은 五割以內의 四種으로 할 것
八、珍島地主의 所謂 振興會、農友會、興漢會等을 撲滅함에 努力할 것
九、珍島地主의 私定한 所謂 小作契約條件은 一切 否認할 것

◇執行委員

曹秉祚、李喆鎬、朴鍋海、河承紀、朴尙律、劉昌玄、朴得春、李遠質、李勳芳、金濟燮、金鳳文、朴智俊、李斗珍、金世奎、金吉祚、李東旭、李壽玄、朴君碩、蘇允浩、李千來、曹乃厚、金柱彬 (珍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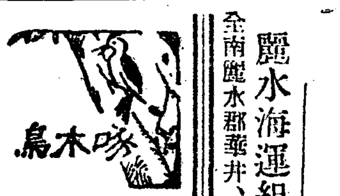
靑年會가 十五條項陳情 全南張知事가

求禮에 到着함을 機會로 目下 管內 各郡을 視察中인 全南知事 張憲植氏가 去二日에 求禮에 到着함을 機會로 當地 靑年會에서는 臨時總會를 열고 協議한 結果 求禮發展策의 十五條項을 들어 張知事에게 陳情하엿다는데 그 內容은 아래와 갓다더라

一、鐵路를 迅速敷設의 件
一、潺水江에 橋梁을 架設의 件
一、求禮南原間 道路 撰繼修를 速成의 件
一、求禮河東間 三等道路를 改修의 件
一、順天郡黃田月燈兩面과 谷城郡竹谷面 一部를 本郡에 編入의 件
一、郡守를 頻煩交遞치 말 件
一、面協議員과 學校評議員의 選擧를 人格本位로 할 件
一、求禮公普校에 高等科 設置의 件
一、求禮公普校에 二學級을 增設의 件
一、學校長을 朝鮮人으로 採用의 件
一、光義公普校에 學年延長의 件
一、市區改正의 件
一、各面水田集團地에 貯水堤堰 設置의 件
一、鳳東里多有地(舊運據)의 個人貸付를 取消하고 公益에 供할 件
一、緣故林을 民間으로 還付의 件 (求禮)

麗水海運組合創立

全南麗水郡華井、突山、南面三面은 元來 孤島로 交通이 大端不便하든 것을 昨年度에 郡當局에서 麗水海運組合을 設立하고 十九噸의 大型發動機船으로 運河하고자 方今 資金募集에 努力中인바 來十五日에 發起總會를 開催할 豫定이라더라 (麗水)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安州中學期成會를 爲하야

◇아! 諸君이여! 諸君의 誠意와 努力下에서 中學期成會라는 거룩한 團體가 誕生되엇슨 實로 우리 靑年子弟의 敎育發展으로 보아서 우리 民族의 現狀으로 將來를 祝賀할 바이다

◇現下의 우리 敎育狀況이 果然 엇더한가 火焰가튼 向學熱은 漸漸 膨脹하여 오나 그 靑年들을 收容敎育할 만한 機關이 不足하야 路上에 彷徨하게 되는 것은 一般有志의 慨嘆하는 터이다

◇오늘날 우리의 處地에서 多數한 靑年男女로 하야금 小學中學大學等의 階級的 敎育을 주기 不能한 것은 吾人의 呶呶를 不俟할 바이어니와 可及的 多數에게 可及的 高等敎育을 受할 機會를 열어주는 것은 全民族的 要求라 하야도 過言이 아일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會가 組織되엿다는 消息을 듯고 直接 物質的 貢獻은 못하나 暗喜와 心祝을 마지 아니하엿섯다

◇그런데 顧聞하는 消息을 듯건대 期成會가 何等의 積極的 活動은 업고 도로혀 一部有志人士 諸位의 反對說이 有하다 한다 이것이 事實인지 아닌지 아즉 疑問이나 만일 이 消息이 事實이라면 決코 歡迎할 수 업는 것이다

◇諸君이 그 事業에 着手하든 當時의 熱誠은 벌서 冷却되고 말엇는가 만일 諸君이 眞正한 覺悟아래에서 中等敎育의 必要를 切實히 늣긴 結果이 이와 가튼 團體를 이르켯다면 이런 不祥의 所聞이 傳播되지 아니할 것이 아니냐 事業은 絶對 成功할 수 업슬 것이다 이것은 諸君의 誠意와 團結이 不足한 證明함이 아닌가

◇安州城은 歷史上으로나 地理上으로 보아 平南에 第二의 都會이다 全人口가 三萬餘의 巨郡이요 富力으로 論하드래도 萬餘石秋收或은 幾千石乃至幾百石秋收하는 資産家가 幾百人이 存在하나 一個의 中學을 建設코저 發起한지 二三年에 歲月을 虛費하다가 今日에 至하야 物質의 餘裕가 잇는 이는 物質을 捐出하고 赤誠이 잇는 이는 赤誠을 다하야 安州一境의 靑年이 大學의 實覺가 되며 渴望하고 企待하는 거룩한 中學期成會는 中學校를 誕生하야 智識慾에 달뛰며 入學의 마음이 잇스나 機關이 업서 彷徨하는 靑年子弟를 收容하야 陶冶하기를 바란다

◇諸君이여! 이것이 엇지 靑年만을 爲함이며 安州一郡만을 爲함이리오 全民族的 全朝鮮的 一大事業이 아닌가 一部의 反對云云의 說을 傳하나 이것이 平素一般의 企待에 너머나 背馳됨이 아니냐

◇아! 特別히 安州境內에 居住하는 父兄諸位여 覺醒하라 그리하야 發起當時의 誠意와 團結을 再現하라 그러면 中學期成會에 參加된 人士이든지 아니든지 同心協力하야 우리 靑年들의 企待가 헛되지 안케 하기를 바란다 오늘날 有産階級人士들이 賓客과 享樂을 爲하야는 巨萬의 財를 不吝하되 이와 가튼 貴重한 民族的 大事業에는 도로혀 冷淡함이 엇지 痛嘆할 바이 아니냐 富를 私用함에 社會를 爲하야 提供함이 엇지 떳떳한 道理가 아니냐라 (舊川京生)

莞島에서 無産靑年組織

全南莞島郡에 잇는 有志靑年의 發起로 莞島無産靑年會를 지난 二十八日午後一時頃에 莞島面花興里 敎良書齋에서 열엇는데 臨時議長 金炳奎氏가 登壇하야 發起趣旨를 說明한 後 綱領規約을 通過하고 委員十八人의 選定이 잇섯스며 會員의 感想談으로 閉會하엿는데 綱領과 當選된 委員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綱領 我等은 歷史的 必然인 合理的 新社會의 建設을 期함

◇委員 劉鳳均、金海日、金東燮、金生圭、金彩坤、金宋津、黃金城、金寶圭、李弘俊、崔正來、丁圭哲 (海南)

金海勞農聯合 執行委員會

總會開催準備를 討議

本日四日午後八時에 金海勞農聯合會事務所에서 第五回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執行委員長 林學圭氏外 庶務部委員이 列席한 後 今番開催할 總會時日과 場所는 左와 如히 決定하고 臨迫한 總會에 報告할 過去一年間에 經過報告書를 朗讀修正하고 總會에 上程할 討議事項은 本會議事會에 一任하기로 하고 委員諸氏는 總會開催準備에 紛忙中이라더라

時日 三月八日午前十時부터
場所 金海私立合成學校階上에서(金海)

蔚山에 革新會創立 思想團體

客月十一日下午七時에 蔚山靑年會館에서 思想團體인 革新會의 創立總會를 開催한바 蔚山靑年會委員長朴玄鎬氏外 各團體代表와 有志의 出席裡에 發起人代表 下怒濤氏의 革新會發起의 宣言이 잇슨 後 臨時議長으로 下怒濤氏가 被選되야 各地에서 온 祝電과 祝辭文을 朗讀하고 憲則과 宣言綱領을 通過하고 左의 執行委員을 選定한 後 同十時에 閉會하엿다더라

◇委員 朴正秉、金喆 下略(畧)
◇宣言(畧)
◇綱領
一、吾人은 個人及團體의 敎養과 訓練으로 各自의 人格完成을 期함
二、吾人은 正義人道의 原則下에서 靑年運動의 革新을 期함 (東萊)

大邱靑年의 除盟原因을 調査 晋州靑年이

公正한 輿論을 喚起할 計劃

慶南晋州靑年會에서는 去四日午後九時 本報晋州支局에서 同會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左와 如한 決議가 잇슨 後 同十二時頃에 閉會하얏다더라

一、靑年總同盟委員會에서 決議하얏다는 慶北大邱靑年會除盟原因及理由를 徹底調査하야 公正한 輿論을 喚起할 일
一、慶南靑年大會期成을 爲하야 徹底努力할 일
一、春季大運動會는 警察의 干涉으로 當分延期할 일
一、敎育部委員林榮達君을 庶務部委員으로 移補할 일(晋州)

民衆運動大會에 馬山서도 參加 魚市靑年共助會

馬山魚市靑年共助會에서는 去四日午後八時에 魚市場會社內에서 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各部事業實行方針 勞働夜學維持方針 朝鮮民衆大會에 參加의 件 夜學生春期旅行의 件 以外 數件을 決議하고 夜學發展問題에 就하야 顧問金漢宗氏의 熱辯이 有한 後 同十一時二十分頃에 閉會하얏다더라 (馬山)

禁止는 當햇스나 期於코 撲滅 東萊홍치聲討

委員이 警察에 質問

東萊靑年會에서 天道敎撲滅演說會를 開催하고자 活動한다 함은 旣報와 如히 東萊署에서는 突然히 禁止하얏음으로 委員들이 署長을 訪하고 禁止하는 理由를 무른즉

警 「아직 外지 慶尙南道에서는 普天敎撲滅演說을 許可한 곳이 업슬 뿐 아니라 元來 남을 撲滅한다는 것은 許可할 수 업노라」

委 「그러타면 엇재서 馬山과 釜山에서는 撲滅會가 열니엿느냐」

警 「그것은 알수 업는 일이오 許可하엿다는 消息은 듯지 못하엿슴」

委 「그러면 釜山에서는 普天敎徒와 市民사이에 大衝突이 생겨서 負傷者가 만타 하니 萬一을 念慮하야도 그 양을 수는 업노라」

委 「그러면 名稱을 바구어서 撲滅會를 하지 말고 罪惡調査批判講演會라는 名稱아래에서 講演을 할 터이니 그것은 엇더하냐」

警 「그것은 조흐나 屋外集會는 絶對로 못하겟다」 함으로 不得已 돌아왓다는데 그들은 다시 協議한 後 엇더한 方策을 取하여서라도 東萊에서는 普天敎를 撲滅식히고야 말 터이라더라 (東萊)

不安하든 黃州南岸 住民奮起로

今年에 堤防을 保築

黃州邑南方을 貫通한 赤壁江沿岸에 堤防의 設置가 無하야 年年히 洪水時에는 城南里 碧城里一帶에는 全部가 浸水되야 그 地方住民에게는 生命과 財産에 完全한 保障을 엇지 못함으로 一般의 不安이 만튼바 昨年에 至하야 비로소 郡民全部의 協力으로 多少의 堤防을 싸어서 不安함은 겨우 免하엿스나 그도 完全한 것이 못된다 하야 今年에 다시 數千圓의 工費로 保築하기로 한다더라

赤壁江橋도 架設 解氷後에 工事

黃州赤壁江에서는 아즉 橋梁의 設置가 無하야 交通上 不便이 莫甚하든 바는 勿論이고 黃州市發展上에도 만은 支障이 잇섯는 바 今年에 이르러 爲先 假橋라도 設置케 되엿다 하는데 解氷과 共히 곳 工事에 着手하리라고 (黃州)

警世의 木鐸인 使命을 다하자! 盛況에 盛況인 黃海道記者大會

朝鮮에 처음되는 黃海道新聞記者大會가 載寧에서 開催된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去二日下午七時부터 定刻에 載寧幼稚園內에서 열리엇는데 發起人代表 李根燮氏가 開會의 辭를 述한 後 經過報告와 祝電朗讀이 有한 後 本會議에 入하야 議長으로 姜齊模氏가 選任되어 大會의 宣言文及決議案作成委員을 議長의 指名으로 各支分局提案 其他事項을 決議하고 同十一時에 第一日은 閉會하엿다는데 出席한 東亞、朝鮮、時代、每日、各支分局의 代表三十八人이 出席하엿다고 東亞代表一四名 時代代表三 朝鮮代表一七名 每日代表四 第二日은 翌日(三日)上午十時頃에 前記場所에서 繼續會議를 開催하야 宣言文及諸般事項을 通過한 바 決議案은 다음과 갓다고

◇宣言

우리는 公正한 態度와 冷靜한 觀察로 社會輿論에 臨하야 實로 民衆의 公器이며 警世의 木鐸이 된 使命을 盡하기로 自期하며 時代相과 實生活에 適合한 文化를 助長하기에 留意하되 嚴正을 主로 하야 無偏無黨 正確한 言論을 主하기를 期키 爲하야 左의 案을 決議하노라

◇決議案

一、一般社會에 對한 件
(가)農村에 對한 記事는 迅速明確을 圖하되 特히 地主對小作人關係의 愼重할 것
(나)都市에 對한 記事는 公正摘發을 主로 하되 特히 勞資爭議에 留意할 것
(다)特殊階級에 對한 記事는 絶對로 擁護的 態度를 取치 못할 것
二、新聞社에 關한 件
(ㄱ)營業에 關하야 代金其他制에 對하야 從前보다 寬厚히 할 것
(ㄴ)編輯에 關하야 記者地方派遣에 對하야 時時巡廻할 것
三、支局待遇에 關하야
(가)支局員에 對하야 待遇를 本社員과 가티 할 것
(나)地方記者의 資格을 向上키 爲하야 養成에 施設을 行할 것
(다)支局長會議를 年一次式 必히 開催할 것
四、當局에 對한 件
(가)現行하는 出版法及新聞紙法은 時代錯誤의 法임에 不拘하고 急速히 撤廢를 要求할 것
(나)無理한 行動과 苟且한 辨明으로 公正한 言論을 壓迫함에 對하야 積極的으로 此를 糾彈할 것
五、其他問題
(가)支分局間에 互相連絡을 保하며 一致行動을 取할 것

下午三時 載寧明新學校에서 續開한 바 議長姜齊模氏는 事故에 因하야 辭免하고 議長으로 李根燮氏가 選任되야 開會를 宣言한 後 金秉補氏로부터 來賓의 祝辭와 祝電朗讀이 有한 後 各支分局의 提案을 議하기 爲하야 各支分局의 分科를 開하엿다고

◇時局問題
(가)普天敎徒를 調査撲滅할 것
(나)東拓의 走狗가 되야 小作爭議를 撲滅하는 北栗面向上會를 調査撲滅할 것
(다)各處 假濟社、共濟社等 不正社團을 調査撲滅할 것
(라)黃海道高等敎育機關을 速成하도록 援助할 것
(마)北栗面無法律한 黃築事件에 對하야 너무 冷視하는 鄕郡士會에 反省을 警告할 것

右五件을 一括하야 委員五人에게 一任하야 實行하기로 하고 委員을 選擧한 結果 아래와 갓다고

李根燮、金秉楨、金晶奎、姜齊模、金鐸

龍川戶口數

龍川郡의 客年十二月末現在戶數及人口數는 如左하다더라

◇朝鮮人 三三、四三四戶 九七、八七六人 男四九、八一九人 女四八、〇五七人
◇日本人 一五六五戶 男四、四三人 女三九三人
◇中國人 三四八戶 男六七四人 女一六七人
◇總數 三四、三四七戶 男五〇、九三六人 女四
計 九九五三三人(龍川)

白農監의 頌德碑

黃海道信川郡加山面裵村里白樂七氏는 現在 京城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農監으로 昨年의 旱災、水災、風災、虫災、雹災로 因하야 該小作人도 例年에 比하면 收穫이 大減하얏슴으로 學校當局과 交涉한 結果 六割減稅의 承諾을 得한 白氏는 親히 田畓을 筆筆踏査하야 公平無私하게 分配하엿슴으로 一般小作人은 氏의 厚意에 感泣하야 頌德碑를 建設하엿더라(信川)

敎員試驗各格者 黃州에서 二名

黃海道에서는 小學校普通學校敎員第二種及第三種試驗을 去十二月에 施行하엿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各郡에 合格者가 多數인 中 延白郡의 三種試驗合格者는 如左하다더라

延白郡延安面紫陽里 張庚星
延白郡海月面環城里 李承憲 (延安)

◎黃州鄕校掌議會 去二月六日에 黃州郡廳에서는 黃州郡鄕校掌議會를 開催하고 여러가지의 進行方針을 討議하엿다고(黃州)

二月中元山 三指定港貿易

二月中에 新昌、新浦、西湖津三指定港貿易額은 左와 如하더라

◇新昌港 移出 五一、〇八三 移入 五、〇六四 合計 五六、一四七
◇新浦港 移出 一九、五〇四 移入 一、一九八 合計 二〇、七〇二
◇西湖津港 移出 一五二、四五二 移入 二、三六四 合計 一五四、八一六 (元山)

元山橫路貿易 二月中에 十八萬圓

元山港二月中橫斷航路貿易은 輸出額十四萬三百十一圓收入額四萬五千四百十一圓인바 一月中에 比하면 輸出十七萬七千百三十圓 輸入一萬五千四百二十六圓의 各減을 示하엿는데 細別은 如左하다더라

▲輸出品 ◇穀類(單位圓) 玄米七〇一七〇 精米一二五六〇、大豆二八二五二 淸酒一五 罐詰三六 牛肉一九五 雜穀一〇三 牛脂七五 生牛二四四八〇 其他動物五四〇 石炭二 木炭三二七三 船舶料六一〇 合計一四〇三一一

▲輸入品 菓子三八〇 淸酒六七五 生菓一七 乾菓九二一 八 食鹽二〇 粟九九〇 醬油四九〇 生鮮二〇 革製品七 肥料七五 麻纖維四二 其他纖維九五 綿布一九六 綿絲八六七 洋傘七七 帽子三〇〇二 衣類七〇 古新聞紙一七五 陶磁器六八八九 工匠具五三 硝子製品一〇一 鐵物類一六八 金屬製品四〇 時計九五 樂器八五七 乳母車七〇 藥種二七〇 藥鑵一四 旅行李一〇〇 竹製品一二〇〇 玩具八四 文房具一五〇 其他雜品二九四 合計二七八七一

◇伏木線 ▲輸入品 乾魚二七四、打綿一七〇六 六漁網地二〇〇、合計一七五四〇 輸出無함(元山)

高原에 穀檢出張所 當局에 設置請願

高原郡은 每年大豆三萬石米一萬石以上을 線移出하는 地方임에 不拘하고 于今것 穀物檢査所가 업슴으로 永興檢査所에서 出張檢査하는 關係로 時日이 遲延되며 當業者에게 不便과 損害가 만흠으로 穀業者連署로써 高原에 穀物檢査出張所設置를 道當局에 請願하엿는데 當局에서는 目下 調査中이라더라 (元山)

洪原饑民救濟에 儒林會가 百圓

咸南洪原郡에도 饑饉에 우는 同胞가 千餘에 達함으로 當地 有志諸氏는 此를 救濟하기 爲하야 客月九日에 洪原饑民救濟會準備會를 열고 發起人募集委員外지 選定하엿다 함은 本報에 이미 報道한 바와 如하거니와 同發起人募集委員들은 지난 四日午後一時에 同郡儒林會總會가 開催됨을 期會로 그 趣旨를 說明하엿든바 同會에서는 同情金 百圓을 支拂하기로 決議하엿다더라 (洪原)

公設理髮所로 元山理髮業者問題

元山府에서는 社會事業의 한가지로 北村洞公設市場에 理髮所一個所를 設하고 料金은 普通料金보다 廉價로 하야 一般無産者의 便利를 圖하라는 計劃을 세우고 理髮舘設置를 進行中인데 此計劃을 探知한 理髮組合에서는 一定한 料金以下로를 바드면 一般組合員의 理髮所는 營業을 못하게 될 터이라는 理由로 開業을 못하도록 할가 又는 開業을 할지라도 同一한 料金을 徵收하도록 하여달라는 希望條件으로 目下 府當局側으로 보면 普通料金을 徵收할 것 가트면 새로히 開業할 必要가 업겟슴으로 初旨를 斷行할 듯하다더라 (元山)

新高山少年의 圖書室、運動場 一般稱頌이 藉藉

咸南新高山少年會에서는 創立된 지 不過一個月內에 여러가지로 模範될 만한 事業을 着着進行한다 함은 累報한 바어니와 今番에는 本會 宣敎部와 體育部에서 圖書室과 運動場을 設置하기로 一邊으로 書籍과 雜誌四百餘種을 備置하고 一邊으로 運動場을 修築하야 本月二十日頃에는 全部完成되리라더라 (安邊)

江陵佛敎女靑 三月一日에 創立

江陵佛敎女子靑年會創立總會를 同邑錦町江陵佛敎布敎堂內에서 去三月一日에 開會하엿는데 臨時議長 任才星鏞과 臨時書記 全鳳子가 就席한 後 無事히 總會를 마치엿는 바 會集된 人員은 三十名이라 하며 被選된 任員은 如左하다더라

顧問 韓昌燮 庶務部 事務幹事 丁德子 外三人 敎務部 事務幹事 吳惠子 外二人 體育部 事務幹事 崔知順 外二人 (江陵)

新高山의 三月一日紀念 早起會도 組織

咸南新高山에서는 有志靑年의 發起로 早起會를 組織하야 前途가 遙遠한 우리 靑年의 活氣를 培養하며 思想을 振作케 하는 同時에 去三月一日을 紀念코자 同日午前五時에 同會館에 集合하야 諸般事項을 討議하얏다더라(安邊)

咸興屠殺數

二月中 咸興面에서 屠殺한 頭數는 牝牛三五頭 牡牛一五九頭 豚六〇頭인데 그 斤量은 一〇七、六八貫 價格은 一四〇三三圓이라더라(咸興)

東北地方入學案內

江陵郡江陵面校洞里鄕校內에 잇는 江陵郡鄕校財産으로 維持해 가는 首善講習所는 設立된 지 四五年 동안에 當局者의 熱誠으로 江陵敎育界에 만흔 功勞가 잇서 一般은 感謝함을 마지 아니하든 바 今年부터 더욱 擴張하야 中等程度敎師一名을 增聘하고 學級도 普通部에는 一二年程度를 一年동안에 修業하는 것과 五年級만 一年동안에 修了하는 速成中等部 二三學年을 延長하야 江陵敎育界에 만흔 企待가 잇다는데 今年學生募集要項은 如左하다더라

◇普通部

學級別	修學程度	募集人員
第一組	普通一二年	五十名
第二組	普通三四年	五十名
第三組	普通五學年	五十名
第四組	普通五六年	五十名
第五組	普高一二年	五十名

◇速成中等部

學級別	修學程度	募集人員
第一組	高普一年	五十名
第二組	高普二三年	若干名

右出願期는 來四月五日까지 受驗日은 來四月八日(江陵)

洪原靑年幹部會

咸南洪原靑年會幹部會를 지난 五日午後八時에 西門外 李在鶴氏의 집에서 幹部會를 開催하고 朴河運氏司會로 勞農事業의 會計引繼委員은 오난 十五日에 開하기로 決定하고 運路氏로 選定하얏스며 當局에게 解散을 當한 前洪原靑年俱樂部에 對한 調査委員은 申東勛、李在熊、吳洪燮、吳洪燮諸氏로 選定하고 其他 여러가지 決議를 맛친 後 閉會하얏다더라(洪原)

元山組銀帳末

元山組合銀行의 二月末現在諸帳簿高는 左와 如하더라(單位圓)

◇預金 定期預金一四四六、五三七 當座預金五四三、八三一 特別當座預金六一二、六五〇 諸預金三八八、九三〇 合計二九九一、九四八
◇貸出 貸付金三九二六、八三六 當座貸越三七八、五八二 割引手形九一四、三一 九荷爲替手形四六四、〇六九 合計五六八三、八〇六(元山)

仁川驛客月業績

仁川驛二月分業績은 左와 如하다고

▲乘車四、九九二人 ▲降車五、二四二人 ▲入場四、二二一人 ▲手小荷物發送一〇、七九七斤 同到着一〇、五四二斤 ▲貨物發送四五、三四二斤 同到着二、二五九斤 ▲收入 乘車七、六四四圓 貨車四九、二二二圓 合計五六、八五六圓 昨年同月比二五、〇三二圓減 (仁川)

趙氏丁憂

時代日報社仁川支局顧問 趙鍾昇氏는 今月十日 仁川府栗木里自邸에서 遭內艱喪(仁川)

半島少年會로 改名

市內樓下洞二三六番地에 잇는 半島少年部에서는 今番 會名을 半島少年會라 改稱한다더라

朴博士又祝賀

京城齒科醫學校三學年生一同主催로 三月七日午後六時에 市內黃金町雅敍園에서 今番 새로 醫學博士의 榮譽를 어든 朴昌薰氏의 祝賀會를 開催한다고

期米

仁川期米 第二報 三月七日

後場小軟

前場阪地止價三十七圓五十九錢의 高報와 共히 三十四圓四十錢에 寄付하고 當市場은 後場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七圓四十五錢의 報를 據하고 三十四圓三十錢에 場을 始하야 二節亦三十四錢을 維持하더니 阪地二節四十錢으로 三節四十六錢外지 突返함을 窺하고 買氣案外旺盛하야 四十五錢外지 跳返하엿스나 阪地四十四錢으로 三十八錢에 止場함을 受하고 五節三十四錢으로 更落하야 結局三十七錢에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가 十一丁이며 阪仁의 鞘는 三反一丁이더라

大阪場況 七日後場

今後場阪堆場況은 地場及株式筋의 賣와 地場一部買로 三十七圓四十五錢에 場을 始한 後 買氣稍薄하야 四十錢으로 反落하엿다가 地場買進으로 六錢外자 更히 跳返하더니 各地 低報를 受하고 三十九錢外지 賣押한 後 休日을 控한 關係로 商

◇各地止價◇

	七日	止	昨	比較
大阪	三七、八九			二、低
東京	三七、六九			四、高
兵庫	三六、六二			六、低
下關	三七、一〇			一、高
桑名	三六、九三			五、低
名古屋	三六、一七			一、高
金澤	三五、九二			七、低
新潟	三五、一八			〇、高
仁川	三四、三七			三、低

◇阪仁氣配◇

大阪 三十四圓三十八錢 仁川 不變

◇各限俵合◇

七日後場

[illegible]

組合員에게는 小作權을 不給

재차불안한재령농민 작인들은날마다의론중

황해도재령군 북률면(黃海道載寧郡北栗面)소작쟁의라하면 누구나 다아는일이어니와 지난삼일부터 소작계약을 시작하엿다는데 죽내(竹內)주임은 말하기를금번 소작계약은 완납자에게 한하여한다 하며 미납소작인에게는 자긔가 엇지할 권리가 업승으로다만 본사의 명령을기다릴뿐 이라는데 그부정한 사원들은 또다시추악한행동을 시작하야 북률소작조합원 완납자에게는 소작계약을 하여주지안코 차일피일하는고로일반은 크게분개하든중 지난사일에는 대흥리김제원(大洪里金濟元)에게 사원유정(油井)이 가말하기를 너는소작조합에 자조다니는 자임으로 소작계약을 하여줄수가 업다함으로 김제원씨는 크게분개하여옷을벗고 최후행동을 하려함으로 그자들은 크게두려워하며 사원김승학(金承學)가 김제원을 붓고밧그로나와하는말이 그대는 그리지아니하여도 잘하여줄터이니 안심하라고하고 속시다리고 드려와아모말업시 잘하여주고 말엇다는바그러치 못한소작인에게는 별별고압적 수단을다쓰며 동척의주구배들은 사무실의 한모퉁이를차지하고 자지우지하며 동력일히 며우하여주고 또동척에서당국도 주구배를사긔 사원과동는자긔의 주구인조합장을식혀소작인에게진술서(陳述書)을밧는데그진술서의내용인즉

작년수확 이얼마소작료가얼마 부채가얼마라는 것을세세히 긔록하라는것이는데 사실대로말하면 소작료가 권수확의칠할팔할되는것을 주구배가 삼할내지이할의 비례로 진술서를밧고만약 소작인이사실대로 진술서를하여 가지고오면눈을부릅뜨고도로내어주며 하는말이 권수확에소작료가 삼할가령되게 하여가지고 와야지 그러치 아니하면소작권을 취소하겟다고 한다는데 일반은크게분개하야 매일다수한 군중이모혀 의론중인데아마불일간큰풍동이일겟다고인심은매우흉흉하다 더라(재령)

高原作人再協議

동척교섭의뎐말보고와 여러가지의대책을협의

함남고원 소작조합총회(高原小作組合總會)를 삼월일일에당디공립보통학교에서 열고 동척원산지뎜(東拓元山支店)에파견한질문위원의 경과보고가잇스매일반텽중은 귀를기우려가며 한마듸라도 새일가보아 서로다토아가며 듯는광경은 자못긴장된장내에 비분한빗이 뒤워보이엇는데 아래에쓰인 네조건은지뎡과 타협이되엿스나 한가지조건은 보류되엿다고 보고하엿더라

一、小作權永久保障할것
二、肥料半分負擔할것
三、小作料及狀稅調定할때必히立會할것
四、不正한駐在員과農監을淘汰하거나譴責할일

이상네조건은 무사히 해결하엿스나한가지 조건은 상밧히충분이도사한후의론하기로하얏는데

一、從前一斗落에狀稅七升一斗를東拓이管掌後는從前一斗落에十升一斗로暴徵하니從前대로減下할것

이것은 지금동척뿐아니라 민보(民狀)도만흔니 이후묘사를 한후에 서로해결하기로 보류된것이라하며 그외 여러가지사항을 순조로 착착진행하고 다음파가튼경의를한후 무사히 동일오후다섯시에폐회하엿더라

◇派遣委員=孟泰裕、金泰卿、朴文極、姜興洛、鄭載舜、趙衡喆

一、東拓外地主에게最後로委員을派遣하야事件을모다 打合할일 (고원)

龍岡鹽田人夫 九百餘名의失職

飢寒의苦! 病魔의痛! 불안과우수에싸힌한동리

조선에서 텬일념(天日鹽)생산디로 유명한평남룡강군 광량만(平南龍岡郡廣梁灣)에잇는조선총독부 전매국(朝鮮總督府專賣局)염뎐(鹽田)에서 소금제됴에종사하든염부(鹽夫)약삼백여호구백여명은 작년십일월 중순에제염을 뎡지한때로부터 구백여명의염부(鹽夫)들은별안간에직업을 일허버리게되여 이래새개월동안은 염부들이한푼의 버리도하지못하고 염뎐십장들이 예대(預貸)하는약간의금전으로간신히런명이나 하여지내든바 지난십이월부터는 예대금의 한도도다지내고말엇구나

설상가상 으로류행성감모(流行性感冒)가지크게류행하야 다수한사망자를 내이여슬뿐아니라 아직목숨이 부터잇는동포들도 생활의안돈을 엇지못하고긔근과 질병으로신음하야 견디는불안과우수의 긔분에싸이여잇서서 그의참혹한 형상은말할수업는경우이라더라

緊急救護組織 유력자의발긔로

평남룡강군(平南龍岡郡)광량만(廣梁灣)염뎐에서로동하든염부들이 오래전부터 직업을일허버리고긔근과 병마에 걸려 비참이신음한다함은 별항에 보도하바이어니와 이에대하야 그곳유력자인리재경(李載競)김영환(金永煥)서긔풍(徐基灃)등긔라제씨는 이와가튼참상을보고는 방관할수가 업다하야 긴급회의를열고 구제책을토의한 결과각방면으로활동을개시하야구호동정금품모집과긔근시민구호에노력하는중이라더라(진남포)

崇中增築紀念 가지가지모임

준비에분망중이다

녕변숭덕중학교(寧邊崇德中學校) 신축교사가훌륭하게준공되엇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갓거니와 이제오는십이、십삼、량일을 긔념일로뎡하여가지고 긔념식을 성대히 거행하리라는데 정식으로 교사증축락성긔념식(校舍增築落成紀念式)을십이일정오에열리리라하며 증축을 긔념축하 하기위하야 권조선에잇는 단톄를모아 장차웅변대회(雄辯大會)를 개최하고 그날밤에는 면지단만한소년소녀의 웅변과 중학단(中學團)의연변이 잇슬터이며 십삼일밤에는 각처에서모혀든청년단(靑年團) 대표연사의웅변이잇스리라는데 일、이、삼동으로 남호아상품을 수여한다는데 일동은금『메달』이동은『메달』과은연필삼동에는 은메달 기타부상(副賞)도잇스리라는바 다수참가키위하야

신청긔일 을오는십일까지 연긔하리라는데 만히참가하기를바란다하며얼반에서는중학생이련합하야 학교졸업생각재학생이련합하야 혈투(血鬪)라는각본으로 혼연국이 무대우에 나타나리라하며 그리고또한편에서는 흥흥한활동사진 영사도 잇스리라고

하며 또한신구교사안에는 학예품뎐람회(學藝品展覽會)가열니게되리라는데 권조선 각중등명도남녀학생의 출품인도화(圖畫)습자(習字)작문(作文) 기타수예품(手藝品)도만히진렬될터이라하며 십삼일아츰부터 커녀에지는

가희대회 (歌戲大會)를 개최한다하며 그외에도 예명하기는 권선축구대회(全鮮蹴球大會)를개최하라고하엿스나 각종동명도 학생들이학년말도 되고여러가지로 시긔가 조치못하여참가단톄가 적을것을미리 추측하고 적으나마 권녕변축구대회(全寧邊蹴球大會)를개최하리라는데 학교당국자와 일반학생들은 방금여러가지 준비에분망중이다(녕변)

金組에서貯金拒絶

액수가적다고저금을거절 텬안금융조합의괴괴한일

지난오일 오후두시경에 충남텬안군본뎡(天安郡本町)에서영뎡(榮町)으로들어가는로상에서나 히칠팔세되여 보이는 소녀가손에다 이원오십권의 돈을움켜주고울고섯는것을보앗다 그뒤에는 십오세가량 되여보이는 소년하나이그소녀를 달내며 금융조합과은행에서는 저금을밧지 아니하낫가우편국으로가서 저금 하여주마하고 우편국으로 가라고영뎡길로들어 스게되엿다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들으면

전긔소녀 는동군본뎡일뎡목에사는던학근(田鶴根)의장녀금년팔세된 던련(田璉)이라 한다던긔련씨는 병련의 장래를위하야 텬안금융조합(天安金融組合)에수련권부터 저금을하야 수백원에 달하엿든바엇지하지못할사정으로그저금을차저다쓰고 약일년동안을 계속하야 저금을하지못하엿다가 다시 영업을하게되는동시 권긔 병련의명의로 건날사용하든 저금통장을들이여금융조합으로 저금 하려보내엇더니 예금계에서

오래동안 저금을계속지 아니하엿스니가 저금을 바들수업다고 거절함으로 엇지하지못하야 도라오는길에호서은행(湖西銀行)으로들어가서 저금하여 달나하낫가 저금액과 저금할사람도 계속할는지도 모를뿐아니라 저금통장갑도 아니되낫가 저금을 바들수업다고 거절함으로 역시 은행에서도 저금하지못하고 조저 나온병련은 저금을못하는것을 분히넉이어 울기만하고 잇던이오 그뒤를따러갓든 소년은할일업시 우편국으로 가서 가지고갓든 이원오십권을 저금하고도라와서 시말을 던씨에게 말하고전날텬안

금융조합 에저금하엿든 남어지 금액을천부 차저오는동시에 저금을밧지아니하는 리유를 물어도리어엇을 물을필요가업다고 거절함으로 던씨는분한을 이기지못하고 이말을 들은이웃 사람들도 금융조합과 은행에서 저금을소액이라고 밧지 아니하고 또는저금을 간단하엿다고밧지아니한은 실로 무리하고저금을 장려하는오늘날의 본의가아니라고 비난이자자하다더라 (조치원)

岩泰小作爭議 一審대로求刑

대구복심법원에서개뎡 판결은래십삼일에연다

전남무안군 암태소작쟁의(岩泰小作爭議)로인하야 암태소작인회의간부 열세명이 그동안검속되야 텰창에서신음중 데일심에서박응언(朴應彥)외팔명은집행유예로 방면되고 서태석(徐部哲)외세명은 보석(保釋)되얏든바지난십팔일에 열린다는 공판이연긔되야 이십팔일에 오전열시부터대구 복심법원 (大邱覆審法院)데일호법뎡에서 신등(新藤)검사와 배석판사렬석으로 개뎡되얏는데 원래소작쟁의로 유명하든 쟁의임으로 이에모혀들은방텽자는 쇄도하야현장은매우복잡을이루엇섯다 복심법원 판사는 주소성명을비롯하야 심리를마친후 신등검사로부터 일심대로 구형하고 가 잇슨후 동일오후네시에폐뎡되얏는데 판결은 오는십삼일이라하며 피고의 형긔는아래와갓다더라

▲徐部哲二年▲徐倉錫一年▲孫學振八月▲金淵泰八月

徐氏保釋은取消 대구형무소에 다시수감된다

암태소작쟁의 공판은 별항과갓거니와 동공판을마치고 신등검사는 서태석씨의보석을 취소하고그자리에서 검거하야 대구형무소에수감하얏더라(목포)

警官駐在所移轉費를强請?

함흥련포주재소경관의 무리한강청에면민분개

함흥군련포면(咸興郡連浦面)은호수가 한룡백호나 되는곳으로머개가 빈민임으로 수년래로학교와 면사무소를 신축하는데만흔금권과 노력을다하얏슴으로일반면민의 생활은 더욱곤란하야오던중 작년가튼 흉년을당하야면민들은 조석의 량식을구하기에 낫과밤으로 권권긍긍하지나오더니 각리구장들은 이에대한선후책을 강구하려고 지난십이일에 구장회를열고 제반사항을토의하는 마당에 그면관내경관주재소원 두사람과 그곳면장과협력하야 가지고와서 하는말이경관주재소를 이면하야 신축하겟스니 권원이라는 금액을면민에게 부담식히라고 명령하다십히함으로 그현장에 출석한면민들은 경관주재소를 이면신축할필요가 업승으로 힘써말한후 이를거절하얏는바 동 십륙일면협의원회까지 개하고 다시천원을더가하야 이천원을 내라고무리하게강청한일이 잇섯다는 말을들은일반면민들은 일개의 순사로서면민전부를 무시한것도 사실이려니와 소위면장으로써 면민의생활을 돌보지아니하고 권력계급인 그들과협력하야 가지고 이와가튼 한다하야 원성은자못 놉하간다하며 경관들의 무리한 청구를 거절하고저하야 이사정을도(道)에진정까지하기로하얏다더라(함흥)

古城山貸付問題

장성삼계면민들의갈망

전남장성군 삼계면(長城郡森溪面)에잇는고성산대부쟁쟁(古城山貸付爭爭)은삼계면민(森溪面民)과 천긔농장(川崎農場)사이에계속하는중인데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몃날전에 삼계면민들은각각동(各洞)을합하야 대부원을도당국(道當局)에데출한것이라는데 일반면민은 이것이 그들의 사활문뎨라하야 오즉당국의 공정한처리만을 갈망한다더라(장성)

牙山溫泉에도 饑饉救濟

이백여명에게 조한말식을주어

작년감자년은년래에드문흉년이라각방면으로 궁핍을 못이기여 울만나 갓득이나생활난이며 기이되는 작년한재는 도처가일반이지만은 아산(牙山)디방은 충남에서도 심한한재를 당하야 주린배를 움켜삽고 어떤나하는모양은 참아눈으로 볼수업는터인데 얼마권에 온천(溫泉)에서는 아산에서 데일착으로 구제방을조직하여서 각상뎜과 기타아측잇지안는 인사들에게 몃원식을모아가지고 근이백명되는 빈민들에게 좁쌀한말식을 긔부하엿승으로 일반은이미가를 칭송한다하며 동정자의방명은 다음과 갓다더라(아산)

▲五十圓河濟一▲十六圓五十錢式朴在根 岡崎嘉平▲十圓式 金奎龍 李聖甫 李慶善 曹鳳煥 許昌昊 洪祐植 尻萬之助▲五圓式 李圭夏 尹成伯 李聖三 文成七 中村幾三郎 永松友吉▲三圓式 石田藤四郎 元宜常 櫻井時次 金洛顯 溫陽館女中一同 大崎助子 高田商店▲四圓 長崎▲二圓五十錢式 李重然 趙秉鎬 尹吉眞▲二圓式 金熙炳 崔成玉 金濟元 金黎 金東根 元誠喜 朝鮮日報支局 鐘業舘 小西千代▲一圓式 嫩尙鉉 嫩寅錫 崔淳 李達衡 文文玉 金玉濟 金演錫 洪在一 李炳烈 秋百祿▲救濟를밧는者池光三外百八十四名

西鍾面에小作爭議

련속하야이러나는봉산쟁의 金地主의搾取로

봉산군서종면좌곡리(鳳山郡西鍾面左曲里) 소작인륙십여명의 련서로 지난사일에소관사법(司法) 행정(行政)당당국에진정서(陳情書)를 데출하엿다는데 이제 그자세한 원인을들은즉좌곡리(左曲里)에삼십만평 (三十萬坪)의토디를 가진 동군사인면월산리 (舍人面月山里) 김치귀(金致龜)는 그곳에는 해마다재해가잇섯슴으로도 불구하고 소작인의사정을 추호도 도라보지 아니하야 갈사록 착취수단이심함으로 그동안소작인들은 여러번이나디주김치귀에게애원(哀願)을하엿스나 마츰내 지난이일에 당디동장김관준(金寬俊)씨집에소작인륙십여명이 모히어 선후책을토의한결과 무리한김디주에게 대항하기로동맹하고결의한요구조건을디주에게 최후로교섭하야 만일승락치아니하면 절대반긔(絕對反旗)를들고 디주뿐아니라 디주에게 배수되여 일하는마름인까지 귀탄하기로하엿는데 형세가점차험악하여지는중이라더라

斷食節用으로 긔근동포를구제

안주두레배당의발쳥

안주군내 (安州郡內)의 립석면(立石面)과연호면(燕湖面)의주민이 주림에떨며 헐벗음에떨고 잇는형상은 한갓 애닯는마음으로 보고만잇는것보다는 우리의 힘자라는범위내에서권으나마권긔주민들을구해보자는뜻으로안주 성내의중앙례배당(中央禮拜堂)과동편례배당(東便禮拜堂)에 서는신도들이 일주일동안 아츰한끼를굴머가며 그의절약한 돈은석달동안 매달한주일마다 절약한돈이 이미수십원에 달하얏슴으로누구나 그들의 뜨거운 정성을찬치아니하는사람이업다더라(안주)

別有天地非人間

동해중의무인절도를팔고 삼백원을사취한대사긔한

경북영양군청 긔면청긔동(英陽郡靑杞面靑杞洞)에본적을 두고 청송군진보면 월뎐동(靑松郡眞寶面月田洞)에사는권용달(權用達)이란자는 멋칠권에 돌연히영양경찰서(英陽署)에인치되여 취됴를마치고 일건서류와함께 대구디방법원 안동지령검사국(安東支廳檢事局)으로 송치하엿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전긔 권용달은 오래전부터 불량한행동을하야 일반의 악평을밧던중령남(嶺南)에유명한사긔군하참봉(河參奉)의데자로서일족하참봉이 동해바다 가운데에잇는무인절도(無人絕島)를발견하엿는데 면적이너르고 토디가비옥하여 자유로농사할수가 잇승으로 그곳으로 이사만가면영원히 평화롭게누리는동시에 또는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신선이될터이니 누구던지 이주코저하는사람은치성금(致誠金)을내여야되다는등 허무맹랑한말로 순량한동민들을속여 영양면상원동(英陽面上元洞) 조동서(趙東緖)에게서현금삼백원을사취하고 또그외에도 수명을유인하야 무인절도에가자고 연일군포항(延日郡浦項)까지다리고가서포항에서 배가나오기를 기다리라고하면서 머무는것을 경찰에서 탐문하고 그러케데포한것이라더라(영양)

住持가惡地主

작인을막부려

함남단천군 신만면개평리(咸南端川郡新滿面開平里)에잇는 관음사주지 리재경(觀音寺住持李在環)은 절소유의산림과뎐토에서나는 재산을가지고 술사먹기와 제집동침하기로 일삼는다는 악평이 잇서오던중 지난겨울에는 무직한소작인의 소작디를 동식회사에 팔아먹은일이잇스며 해마다 소작인을 농우(農牛)보양으로 럼에 붐너다가 모진사역(使役)을 식히는등 불마한행동이 만흠으로 부근주민들의 평판이 조치못하다더라 (단천)

望雲農民主催 小作問題講演

서뎡희씨의연변

조선긔근구제회(朝鮮饑饉救濟會)에서구제금을난호아 주기위하야 함평(咸平)에왓든 서뎡희(徐廷禧)씨는 무안(務安)군망운면(望雲面)에잇는 농민공제회(農民共濟會)에서자긔를청하야 강연회를 열고자 한다는말을 듯고 삼십여리를 일부러걸어서 망운까지가서 지난 삼일오후여덜시오십분부터 망운 농민공제회관(望雲農民共濟會館)에서 동회주최로 박영찬씨의 사회로 박영찬(朴永贊)씨가감상을말하고 기타수씨가 감상을말한후서뎡희씨는 『소작인의처디와그생활』이라는 데목을 걸고두시간동안 씨의독특한웅변으로『쉽지말것』과『겁내지말것』을 가장힘잇게 또알아듯기쉽게 강연하야 듯는사람에게 만흔늣김을주고 오후열한시삼오분에 무사히 폐회하엿는데 농민공제회에서는 그면에사는회원들을위하야 사일에도 련리(蓮里)강습소에서농촌문뎨 대강연을 하고자하야 다시씨를 청하엿승으로 씨는그곳으로 떠낫다더라(목포)

京義線列車에投石

차창파쇄검차수한명부상 범인은누구인지모른다고

륙일오전 십시경에신의주발(新義州發) 남행데이렬차가량책(良策)비현(批峴)사이를 통과할즈음에 텰도연변에서 긔차에돌을던진자가 잇서삼등차에 류리창한개가 깨여지고 승무원중검차수(檢車手)의얼골에부상을 입엇는데 즉시선로 관구에 통지하야 현장에출장케 하엿스나범인은 아조종적을 감추고말앗다더라

軌道에置石

남시부근에서 범인은즉시테포

륙일오후 오시경에경의선(京義線)차련관(車輦館)과 남시(南市)역사이에서남행 데륙십호긔차의 진행중에『레일』우에주먹가튼 돌을나하노아서 긔차의 운전을방해하든것을 발견하엿는데 마츰선로공부 암교뎡차랑(岩橋貞次郎)이즉시돌을 치워버려 별별은업섯는데 범인은부근 동리에사는고문경(高文敬)(二○)와한사람으로 판명되여 즉시경찰서에인도하엿다더라

端川郡廳에盜賊

대담한절도 각처로출몰하여

함남단천읍내(咸南端川邑內)에는지난 삼일밤에 당디군텽과고등양복뎜(高等洋服店)과동현리홍성복(東峴里洪成福)상뎜 에절도가 침입하야 문쇠와철권를깨트리고현금 사십원을 가져갓다는데 군텽에는문쇠와 류리창이파손된외에는 아즉별손해를 발견할수업다하고 고등양복뎜에서현금 삼십원을가져가고 홍성복의상뎜에서는 현금 삼십원을가져갓다하며 이일밤에도 당디공립보통학교 사무실 뒤人문쇠를 깨트리고 들어가서 만년필세자루와 담배몃통을가져간 사실이 잇는데 이곳에서는 대담한절도라고 주의하며당디 경찰서에서도 범인수색에 노력하는중이라더라(단천)

認賊爲子

양자가양모를 구타하고방화

전남해남군 옥천면송산리(全南海南郡玉泉面松山里)에사는 백경인(白京仁)(五○)은 백영민(白永敏)의아들노서 저의 백부(伯父)인백영주(白永珠)의 양자(養子)로 들가서양육을바다오다가 팔구년권에 일본횡빈(日本橫濱)에 가서 전차운전수로 다니다가 동경진재통에 조선으로 도라온뒤로는 아모일도아니하고 양부모의 보조를입어 사러오더니

작년에는 양부의 농우(農牛)를쇠려다가 파라먹고 또 십일에는 그의양부의집 벼를 자유로파라먹으매 양부는 그를못하게하야더니그것을분히녁이고전긔백경인(白京仁)은달녀드러세간전부를부서버리고또지난이월이십오일에는 양모되는 백영주의처정씨(鄭氏)(五○)에게금전을 청구하매 정씨는 가난한살림에 그러케 매일금전을 소비한다고 거절하엿더니 백경인은 다시양모인정씨를무려서 상처를낸뒤에먹을 쌀과롱품을 가져가매정씨는그의무리한행동을책망하얏더니 백경인은 마츰내그의양부모의집에 불을노아 동리사람들이 진화는하엿스나 이사실을들은 그면주재소(駐在所)에서는 백경인을 해남경찰서(海南警察署)로압송하야 방금취됴중이라더라(해남)

二百戶燒失

일본삼긔대화

륙일오후 륙시일본삼포 삼긔일출뎡(三浦三崎日出町)경찰서부근에서 발화하야 마츰맹렬이부는바람에 경찰서、활동사진관、우편국등이백여호가 전소되엿는데 부근의소방대수병(水兵)등이출동하엿스나수리가 불편하야 피난민들은 물건을 배에실고 바다로피난을가는등 대혼잡을 이루엇다더라(삼긔뎐보)

地主보다甚한

사음에대한불평

전남해남군북평면 (全南海南郡北平面) 면회계원김경옥 (面會計員金敬玉)은우홍구년이나재근자로서 년래세금기타공과금(公課金其他公課金)의징수에도 여러가지로 일반의불평이만하오든중 금년부터는동면남창리(同面南倉里)에 떠여두량을돈머디주해남군 현산면백포리(海南郡縣山面白浦里)윤광현(尹光現)의사음(舍音)을 어더 그마을자긔친척구장(區長)의세력가뎟사람을 제한외에는 윤디주의소작에명맥을걸고사는윤양호(尹良浩)외대부분을한두락도아니남기고 전부이작을 하엿다는데이말을들은 일반은 그의잔인무도함을비난한다더라(해남)

約婚處女逃走

식집안간다고 종적을감춘처녀

함남홍원군학천면풍동리 (咸南洪原郡鶴泉面豊洞里)강완구(姜完求)의장녀 강귀남(姜貴男)(一七)은 촌에생장하야 보통학교는단니지 못하엿스나 자긔집에서 자습하야 지금보통학교삼학년정도는 넉넉할만한데 그부모는 귀남을 홍원군학천면남평리(咸南洪原郡鶴泉面南坪里)리선필(李善必)의삼남리련한(李鍊漢)(一六)에게 약혼하엿는데 귀남이는 무수한항의를하엿스나 그부모들은 듯지안코 지나간이십사일로서 혼례식을 거행하게할즈음 귀남은 지나간이월십이일에 어데로 도주하엿는데 지금까지 종적을 모른다더라(홍원)

言爭쓰테殿打

국부를중상하여

지난삼일 오후여섯시나되야 삼랑진류도리(三浪津柳島里)정모(鄭某)의집에서그이웃에사는리차봉(李且鳳)(二三)이란 사람과 또그이웃에사는김도치(金道治)(二二)란사람과두사람사이에 언쟁이 이러나서전긔리차봉이가김도치의국부(局部)를 차서 그자리에서 긔절이되얏는데 그이웃사람들과 합의하야 급히구호를 하얏스나 나도모지소변(小便)이 불통하야 증세가점점위험함으로 일시에 부산부병원(釜山府病院)에입원하야 응급치료를받엇과 생명에는아모관계가 업게되얏다는데 그자홍한 원인은상묘매매(桑苗賣買)의수수료(手數料)일원오십전관계로 언쟁이 시작된것이라더라(밀양)

松林中에 縊死體

생활곤난으로 비관자살함인가

륙일오후 네시경에 고양군한지면신당리(高陽郡漢芝面新堂里)뒤산송림속에서 본적주소씨명이모다불명인나히 약삼십세가량되여보이는 사람이 목매여죽은 시톄하나를나무하든사람이발견하엿다는데급보를드른동대문경찰서에서는곳경찰의사를대동하고현장에출장하야검시한후시톄는한지면사무소로보내엇는데 그품속에는 리웅상(李雄相)이라고삭인 도장한개와 현금일원구전이잇섯다하며 그원인은생활곤난으로 세상을 비관함인듯하다더라

휘파람

▲평양인쇄직공의동맹파업사건은 조선인편 고주의량해로 다소 서광이보이다가 일본인편 고주의횡포와 경찰의고압으로 다시더험악하여가게되얏다 ▲경찰 만능의시대이낫가 남의싸홈을 말리든지 더뎃드려노튼지 그야경찰의 자의요 구태어말리라 할것도업지만해결될 가망이잇는것까지 구태여 섯그럽게만드는 심사는무엇일가▲조선경찰의 압헤는 도모지 시비가업는터이낫가 길게말할필요도 업거니와 배꼽훈사람들의 켜지도 다소생각하는것이경찰의본의에 어긋나는일은아니겟지

◇集會◇

▲日曜講話 시내종로청년회관에서는팔일오후 세시부터 김응태(金應泰)씨가『活路何在』라는데로 강화를 한다고

▲『제물포』靑年總會 『제물포』청년회데일회 뎡긔총회는 팔일오후한시부터 인천신뎡(仁川新町)신부조합에서 연다고(인천)

連理枝 (35)

소요산인

『폴』의상식(一)

또거긔에서 머지아니 한곳에는 바위하나가 소사잇는데 이 바위에서는 폭포소리가 과히식그럽게 들리지도아니하고 폭포의 서늘한경치와 웅장한물소리를 질거워할수도잇는 갓갑지도 멀지도아니한곳이다 나는『틀』부인과 말게랫트와『빌지니』와 『폴』과가티 더위가 심한때에는 이바위뒤에게모여서 점심을먹엇다『빌지니』는 무슨일이든지 비록 사소한일일지라도 일일히 남을위하고자하는생각이간절하엿승으로 돌에서서 과실을먹을때에는 반드시 그씨앗을땅에파무덧다

『이것이 자라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던지 하다못해 산새에게라도 과실을먹이게되겟지』라고그는말하엿다 그래서 언제인지 그바위뒤에서『파파야』를 먹을때에 그씨를 땅에파뭇엇더니 이에낫다 그중에는『파파야』의 암나무도 한주가잇섯다 암나무는 과실이여는 나무다이나무는『빌지니』가 이곳을 떠날때에 무릅에다음만터잘앗더니원래속히잘아는 나무임으로 이삼년동안에는 이십척이나되게잘아서 만흔과실을맷게되엿다『폴』이우연히 여긔를왓다가 자긔사랑하는사람의심은나무를보고 매우깃버하엿스나또동시에이나무를보고사랑하는이의떠나간뒤로얼마나긴세월이경과되엿는가를생각나게하여서슯흔모양을나타내엿다 항상보는물건은우리생명이속히살어지는것을 아지못하게한다 그는우리와한가지로 어느틈엔지 아지못하게 늙어가는것이다 그러나몃해동안을 아니보다 별안간맛나보는물건은 우리의 생명이 속히 흘러가는것을 늣기게한다『폴』은이커다란『파파야』나무에 과실이 만히열여잇는것을 본때에 오래동안타디에 잇던사람이 고향에 돌아와서 가튼년배의친구들이벌서 한집의주인된것을 보고 모친의 품에안겨잇던 아이들이벌서 세상을떠나고 이왕 놀나는 것과가튼늣김을 가졋다『빌지니』가 가벌인이후의 기나긴세월을 련력히 회고하게 됨으로 그는이나무를 베여밧이고자 생각을하엿스나 또이나무는『빌지니』의고은맘세의긔렴비와가튼것이라고 생각함애에 그등걸에다 키쓰를하며 그나무가 더욱더욱 무성하여가기를 긔도하엿다 아아 우리삼림중에서아직도풀은빗을 보이고잇는 어린나무여 나는개선문을 바라보는 라마인보다도 더욱더욱 가슴을 울리며 더욱더욱 경의를가지고 너를바라본다 모든 임검의야심의긔렴비를 날마다 파괴하여가는자연은 이삼림속에서 가련한 처녀의 착한행실을 날마도길러간다──

『폴』이 우리집을 아니올때에는 의례히 이『파파야』나무미테서맛나게되엿다 어느날『폴』은여긔에서 정말슯허 못견듸겟다는모양을하고 잇섯다 나는여러가지로 수작을부쳐보앗다 만일당신이 나의지리한 이야기에 실증이나지아는다면 그이야기를 하여보겟소 대화를 하는모양으로하여보겟소 그러면당신은 이절문사람의 자연히 가진상식이 얼마나 발달되엿는가를알것이다 엇더한말이 누구의말인지는 말눈치를보면 자연히알것이다 그래서『폴』은 나에게말하엿다

『나는 슯허서 못살겟서요 틀부인의따님이 떠나간 뒤로이년이개월이 됨니다 그리고여덜달반이나 아모소식이 업슴니다 그는부자이지만 나는구차함니다! 나를이저발인 게지요 나는배를타고 불란서에 가서임검을섬겨가지고 출세를 하고십습니다 내가훌융한량반이 되면『빌지니』의 할머니도 그손녀를 나에게주시겟지요』

『폴』군 자네는 문벌잇는집에서 래나지못하엿다고 나에게말한일이잇섯지?』

『어머니씌서 그러케말슴하섯서요 나는문벌조라는것이 엇더한것인지를 알수업서서 나는그것까닭에 닭은사람만 못하다던지 달은사람이 나보다낫다던지 그러한일은생각한일이업서요』

主催=朝鮮饑饉仁川救濟會

生을愛하는者곳愛神일다

仁川饑饉救濟演奏會

演奏種目
新音樂‖懿法靑年讃揚隊
朝鮮正樂‖文雅俱樂部
妓生歌舞‖龍洞藝妓券番
新劇‖仁川靑年有志
舞臺藝術研究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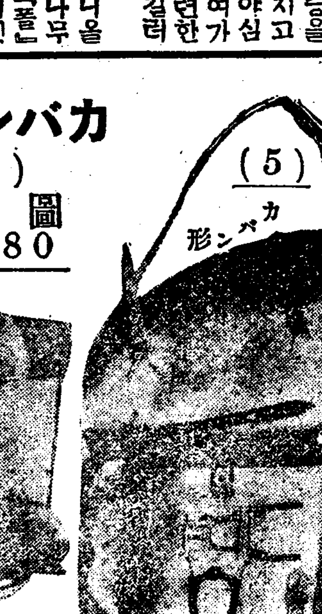
觀客留意
日時場所‖三月九日十日每夜七時부터 仁川演町歌舞伎座에서
觀覽料金‖白券五十錢、靑券三十錢 紅券(學生小兒)二十錢
寄附同情‖熱情잇는이의絕對自由로
會員參加‖分金도張請이업습니다 血淚가잇거든最先自由로 三十錢以上얼마던지

死를救하는者곳救主일다

後援=每申·時代·東亞·朝鮮各新聞社仁川支局

今般新學期에使用하실 カバン을準備하시압소서

(1) 下圖 ¥1.20
(2) 下圖 ¥1.50
(3) 下圖 ¥1.80
(4) 下圖 ¥2.00
(5) カバン形



スヰト形
スヰト形

最新女學生用別珍製カバン
別珍製中形紋入前後 ¥1.90
別珍製中形紋入前面 ¥1.30
別珍製中形紋入前面 ¥1.00

定價表進呈 同業諸氏
(上圖男子用カバン) 大¥2.30 中¥1.70 小¥1.30
地方代金引換으로

Ⓚ 鍾路洋行雜貨部
京城鍾路二丁目 電(光)五〇八番

在京 解放運動團體聯合懇親會

=理由=

今般『火曜會』에서主催하는『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에關하야討議할必要가잇合으로左記時日場所에서『在京解放運動團體聯合懇親會』를開催하니來參함을望함

時日 三月八日午後一時
場所 慶雲洞九一、서울靑年會館內

追告
今般에討議할問題는우리運動線上에重大한問題가됨은既히다아는바이니在京各團體는郵便配達關係로或案內書를期日內에接受치못하더라도期於히參席討議하기를望함

一九二五年三月七日

發起團體
勞働大會
自由勞働者大會
勞働靑年會
서울靑年會